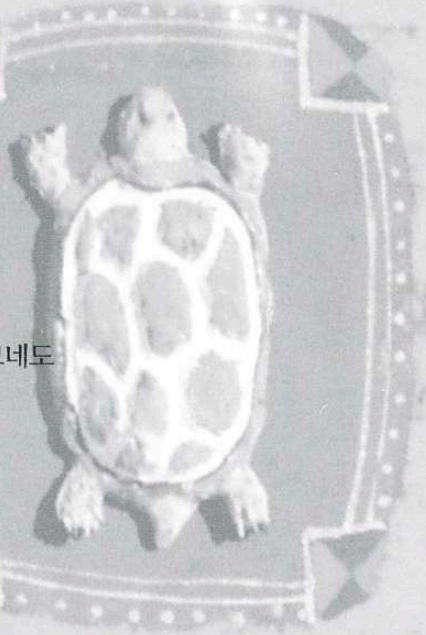
전북회화



전북 회화 1998년 통권 제6호
전북회화회 발행

탑(IX)



발길에 채이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돌맹이도
하늘 뜻으로 바로 설 때
하늘 뜻으로 바로 설 때
거룩한 산돌이 된다.

어둠의 시대에 갇혀
절망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나그네도
별하나 가슴에 심으면
생명의 빛을 살릴 수 있다.

지금은 낙엽이 슬프게 떨어져
정녕 이 마음 허전한데
한바탕 너털웃음으로
넉넉히 지켜 나가야 할
마지막 자존심은 어디 있는가

내가 세울수 있는 것은 나 하나 뿐
아직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면
나머지는 운명으로 남겨둔 채
차라리 두터운 껍질 속에 숨어들어
새봄의 희망 준비하는 씨알처럼
깊은 침묵이나 숨쉬어야겠다.

최 경 수 (한마음 병원 원장)

차 례

1998년 통권 제6호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전북회화회 발자취 2

감성표상의 미학 -황순례- 3

전시리뷰 /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심 -김선태- 5

작업실탐방 / 무의식의 세계처럼 아련하고 손에 잡히기에는 너무 먼 안타까움 -정명수- 6

작가노트/ 어릴땐 무턱대고 까닭없이 좋아했었던 -문 순- 7

한국화와 나의 생각 -이승훈- 8

꽃 비 -이진숙- 10

청록의 먹빛을 기다리며 -서진숙- 11

문화초대석 / 서예와 조수미 -김두경- 12

마이산테마 / 마이산은 왜 명산인가 -안 일- 14

전북회화회전 / 마이산을 찾아서 16

테마기행 / 마이산 기행 17

테마전 / 마이산 -방정엽- 18

세계 유일의 음양신이라 -서진숙- 19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안순금- 20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엄기석- 21

그 독특한 형상과 돌탑만을 모티브로 -이철규- 22

갈색추억으로 -이환배- 23

사랑이 그대를 부르면 -이승훈- 24

불쑥 솟은 영험함이여! -정미현- 25

겨울 숲에서 -박남준- 26

전시장을 찾아서/장귀순 개인전을 보며 -정미현- 25

미술탐방/정미소, 길, 현대인의 고독 -김수미- 30

체험활동/전북회화회 도예캠프 -엄기석- 32

올해의전시풍경 34

문화가탐방/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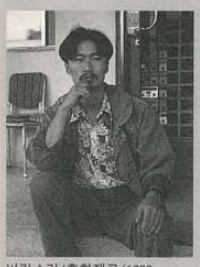
전북회화회 회원 주소록 및 편집후기 38

전북회화

제자: 효봉 여태명

표 지 작 가

이 환 배



바람소리/혼합재료/1998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졸 한국화과졸
98-95전북회화회전/의식의새물결전
98-94동국회화회전
97전라한국화제전(전주박물관)
전북현대미술제(예술회관)
허수아비미술제(군산옥구들녘)
96모악산숨결전(기린예원)
95대한민국청년미술제(인천예술회관)
외단체전30여회전시
전: 예고강사
현: 전북회화/의식의새물결/동국회화회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31~6.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0. 12.29
신입회원 환영모임
1991. 1.4~5
스케치 여행:해남 대흥사
1991. 3.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
사회:이철량
1991. 12.14
정기총회
신입회원 환영모임
1992. 6.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0.21
정기모임
1992. 12.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3.
신입회원 환영모임
1993. 5.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4. 1.
신입회원 환영모임
1994. 2.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
예루갤러리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22
파출소 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 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6. 1.25
정기모임
1996. 6.28~7.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12.12
정기총회
1997. 2.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28
전북 회화회전
제5회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 - 기간 : 8. 6 - 8. 8
장소: 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 - 기간 : 8. 8
안내 :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18
전북 회화회전 및 전북 회화지 발간

감성 표상의 미학

조각가 황 순 례

사람은 누구나 감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가을철 누런 들녘벼 이삭의 잔잔한 일렁임을 보고 풍요의 포만감과 더불어 결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가 하면, 붉은 덩어리가 되어서 서쪽 산허리에 걸쳐져 있는 해를 보면서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 같은 감상에 빠지기도 한다. 또 바다 냄새가 물씬 한 고즈넉한 찻집에 앉아 먼 바닷가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아련한 방랑의 향수를 맛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산책길 바람결에 묻어온 들꽃의 소담한 향기나 무심결에 지나치는 사람에게서 배여나온 땀내 젖은 체취가 추억 속의 인물이나 일들을 연상시킴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상의 감상이나 새로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속에서 만지거나 접촉하면서 느끼는 부드럽다, 딱딱하다, 또는 차다, 뜨겁다. 등 촉감과 맛으로 느끼는 달다, 쓰다, 짜다, 시다 등 미각의 감각들도 의식,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의 대상에 대한 연상작용과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

지각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느끼는 바 대로의 변화무상한 다양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생명 그 자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감성이 상황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감흥과 감정으로 각색되어서 삶 속에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감성이라는 질료에 부가되어지는 사람마다의 주관적 의미와 가치의 촉매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또는 기쁘게도, 슬프게도, 또 즐겁게도, 불쾌하게도, 그리고 또 때로는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느껴지는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을 추스리고 다듬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작업이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말과 글, 소리, 동작, 그림, 조형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서 때로는 단일양식, 또는 복합적 혼합방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능력을 키우고 기법을 익히며 다듬으면서 자기 나름의 수행방법을 습득하여 창작의 일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술가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예술의 특정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한 예술적 특성과 기법은 물론이고 창작 모티브의 전개과정에 대한 미학적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둘 필요가 있다. 예컨데, 조각예술의 경우, 점토를 다루고 정리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익혀야 하고, 나무의 질감과 돌의 강도와 결을 알아야 한다. 또 철재의 다양한 특성도 익혀서 거기에 맞는 각기 다른 공구의 사용법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은 말이나 책보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실제경험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2) 다른 예술영역의 특성과 기법, 그리고 영역들간의 상호 연계성 등도 숙지하여 자기 예술 세계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그들의 장·단점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 감성의 발현이라는 바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영역들은 미학적 관점과 표현기법의 차이에 의해서 제각기 다른 감성 표상과 표현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미학적 감성의 해석상 차이와 체계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넓고 균형잡힌 원숙한 예술적 안목을 갖추도록 꾸준하게 힘쓸 것을 권고하고 싶다.,

(3) 인간의 미적 감각이나 감지능력은 우열의 척도로 차별화할 수 없는 상대성의 특질을 갖는 가치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작품의 가치는 소재 또는 재료의 가치, 규모의 크기나 표현기법의 우열이 아니라, 인간 감성의 질료가 예술가의 주관적 의미 및 가치에 촉매되어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즉 얼마나 순수하게 잘 승화되어 나타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의 상대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예술의 꽃은 제대로 피고, 또 피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객지 생활중 규칙적 산책의 회고담 하나,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산위 고성을 찾아가는 산책 길 옆에 있는 황토와 잡석으로 쌓아올린 담의 틈새에 피어난 보잘 것 없는 풀 꽃에서 발견한 경이 속의 아름다움에 감격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의 그 감격은 나로 하여금 남의 다른 예술세계에만 매료되어 한없이 방황하던 나자신을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나의 생활과 세계 속에서 자주 가슴 뿌듯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평온을 찾게 되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근하고 익숙한 대상을 가장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배여나오는 자연스런 행복감이 바로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옛날에는 / 지본 수묵채색 / 1998

이철규展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심

1998.12.11-12.17 ▶ 문예 진흥원 미술회관
1999.2.19-2.25 ▶ 얼 화랑

현재 한국화의 위기 의식이 한국화 나름의 특수성이 희박해 지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화의 본질과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반추해 보는 것만이 한국화가들의 올바른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민화, 단청만을 차용해내는 소재적인 접근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한국인의 정서, 생활습관, 삶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내는 하나의 문화적인 틀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작가들도 여기에 대해 부단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화가 이철규도 그 중의 한명이다. 그의 이같은 의지는 민족적인 정서에 대한 감화로써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특유의 미적 감정 및 감각이 반영된 민화 또는 민예품 그리고 민속기물 등을 통해 회화적인 영감을 얻고 있다.

그가 과거적인 것으로의 관심을 멈추지 못하는 데에는 한국적인 감성의 리얼리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화풍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분히 현대적이다. 그러나 그는 좀더 토착화된 감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써 현대성을 사용한다. 그의 작업은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현대성에 감성적으로나 의식적인 면에서는 토착적, 전통적인 것에 가깝다.

민화나 전통 문양의 소재는 한국적 구상성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에 존재하는 한국적 미의식과 근원을 추적하여 시간성, 역사성에 대한 공감을 제공하기 위한 몸짓이며, 이를 표현함에 있어 현대적 감각으로 번안해 낸 의도는 궁극적으로 그 나름대로 전통에 대해 접근하는 철학을 담아내려는 시도이다.

결국 작가가 추구하는 회화적 목표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타난 문양이나 풍속도의 시간성과 비견된 한국인의 역사성과 구한말 시대의 인물들과 놀이문화에서 부터 현대라는 시간성의 알레고리로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잠재 의식 속에 내제되어 있는 한국적 정서와 혼을 표출시켜 내고자 함이다.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에 대하여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역사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그의 작업 방식은 한국화라는 틀을 벗어나 회화라는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수묵의 원리와 전통을 적절히 펼쳐 보이면서 동시에 채색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안료와 토분을 사용하면서도, 심지어는 보통 한국 화가들이 금기시하는 아크릴릭 물감을 바르기도 한다. 그모든 기법적 실험은 곧 한국화의 현대적 변신을 위한 몸부림이며, 끊임없는 그의 조형적인 관심사이다.

비록 원색의 색채들이 화면에서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작가의 작업을 채색화로 분류하게 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으나, 작가가 발휘하고 있는 수묵적인 요소와 수용성 안료 특유의 미감과 이해는 한국화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이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묵과 채색의 적절한 조화이며, 화폭에서 펼쳐지는 화음의 이중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성 혹은 민족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작업들이 조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식적인 외양만을 좇는 현실을 상기한다면, 그가 그동안 마음과 그림에 진지하게 담아 온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방법론은 일정한 계시와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김선태: 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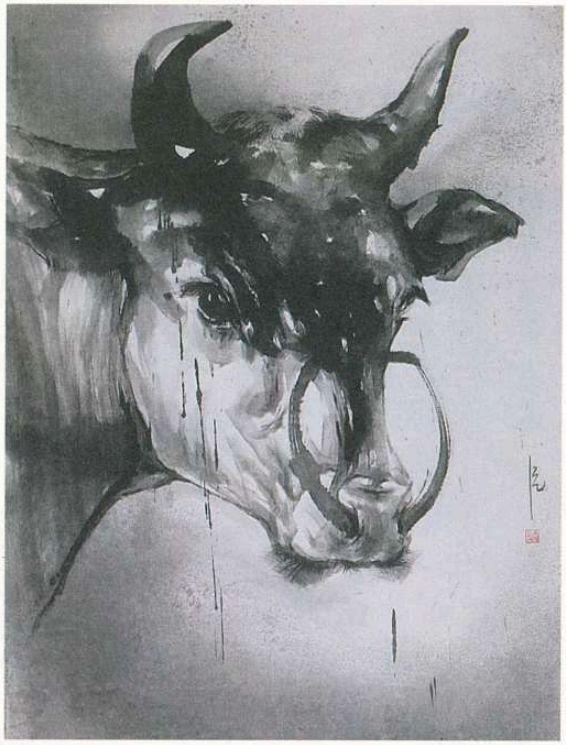
무의식의 세계처럼 아련하고, 손에 잡히기에는 머무 먼 안타까움

이 철 규

어느 畵室이나 작업실이건 그 나름의 체취가 있기 마련이다. 그건 작가 자신을 포함한 작가의 작품이 주는 이미지의 향기가 묻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철규씨의 작업실이 거의 지척에 있을 뿐더러 평소 친분이 있는 터여서 자주 작업실에 들르는 편이다.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우선 그가 제작중인 미완의 작품들에 눈이 간다. 그의 성품과 닮아 있는 듯한 그의 작품 세계상들의 숨결이 묻어날 것처럼 정감어린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그 속에 기억의 파편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더먼 우리들의 遺傳質속에 전이된 무의식의 세계처럼 아련하고, 손에 잡히기에는 너무 먼 안타까움이 들어있다. 이런 미지들이 작업실 곳곳에 선듯 누운듯 펼쳐져 기억 속의 먼 여행을 떠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나는 그런 기억속의 여행을 이철규씨의 작업실에 들러 종종 즐겁게 느끼게 된다.

정병수 (서양화가)



소-종군위안부를 그리며 체험을 강요당하는 소
한지에 수묵 / 1998

어릴땐 무턱대고 까닭없이 좋아했었던

문 순

어릴땐 무턱대고 까닭없이 좋아했었던 동물-소 그 눈매의 깊은 맛이 그 순종적인 느낌의 묵묵함이 그저 좋았었던 나였다.

이후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느낄때마다 동시에 떠올랐던 가장 한국적인 동물-소, 소의 한평생이 한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한국, 특히 그 중에서도 끈끈히 모진 고생끝에 한없이 희생하고 눈물지며 돌아서는 한국의 옛 어머니들이 한국의 딸들이 소의 물기어린 눈가에 머문다.

내게 있어 소 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적인 가장 한국적인 소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화와 나의 생각

이 승 훈



백제기행 中에서 / 지본채묵 / 1998

현재 한국에는 한국화의 전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지필묵에 의존하는 회화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회화의 현대성, 세계성, 창의성, 독창성 등에 이유를 두고 양화의 재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회화 이론까지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있다. 미술 교육 과정이 그렇고, 입시제도가 그렇다. 또한 공모전에서 더욱 그런 횡포를 자행한다고 보여진다.

한국화 전통은 무엇인가? 한국 회화사(繪畵史) 속에서 한국인에 의해 회화적으로 표현되었거나 이론화된 회화정신을 말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회화나 그 이론과 다른 문화에서 유입된 회화작품이나 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된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양단 모두 회화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안휘준 교수의 '한국 회화의 전통'이라는 논문에서 "획일적이거나 단일적이 아니다. 즉, 전통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을 어느 한 각도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다.그리고 예술창조의 건전한 발전은 선조로부터 정신적 유산을 전하는 힘이 유지되며, 국가의 미술에 있어서는 그 고유한 전통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에 배려를 해준 것은 김종태 교수의 논문 동양 미학사상에서 보듯이 중국 교육 철학인 육예정신과 중용정신 도교의 자연주의 정신 그리고 불교의 초자연주의정신, 시서화 일체사상으로 볼 수 있다. "육예는 국민 교육을 실행하는 바탕이 되었음으로 권계적인 내용이 많이 숨어 있다.

육예 중에서 악(樂)은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말한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예술이요, 눈으로 보아서 즐거움, 눈으로 읽고 가슴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 등이 있다."라고 하였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후부터 고사(故事) 인물도가 성행하였다. 권선징악의 내용이었다. 낙랑고분 채협총에서 출토된 효자 전도가 있다. 이 인물도는 역대의 효자충신 열녀 악인 등을 그렸다.

중용정신의 중용은 공자가 제창한 인간의 예의 범절의 행동 반경을 말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윗사람에게 너무 예의가 지나치면 간신이 되고 너무나 사양하면 거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적당히 행동하게 하는데 그게 중용이라는 것이다. 그림에서도 너무나 사실적이면 포스터식 그림이요, 작가의 감정과 이성에 치우치면 난해하여 진다.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나타난 본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것이 회사후소(繪事後素)라고 일컬어진다. 질이 문보다 앞서면 야해지고 문이 질보다 앞서면 겉치레가 된다. 문과 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논어 옹야(雍也)편에 나오는 말이다. 여기서 질(質)은 그림에서 질을 말하고 문(文)은 문체를 말한다. 회화는 색채의 화려함이 아니고 서로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용의 미라고 볼수 있다.자연주의 정신이 있다. 한나라 때 회남자를 쓴 유향은 무위자연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위란 것은 적적하고 고요하며 무성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끌어도 오지 않고 밀어도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간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되며 자연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석도는 석도화론 일획론에서 "일획이란 만획의 근본이며 만가지 형상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다. 이는 작품에 임하여 먼저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본질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일획(一)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의 감정을 파악하여 많은 것을 알면 결국 자기의 표현이 된다. 장자는 대종사편에서 "인간은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다. 주어진 삶을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일체를 망각하고 자연에 되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참다운 화가란 작가 생활에 성심껏 다하고 회화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그 속에서 영(靈)을 취한다고 했다. 문학가 도연명 역시 귀거래사(歸去來辭) 도화원기를 출현시켰다. 이 사상에 의해 죽림칠현 같은 사람이 죽림에 숨어서 평생을 보내기도 했다. 장언원도 자연을 상품 중에 상품으로 보았고, 왕유는 "화도 중에는 수묵이 가장 으뜸인데 그것은 자연의 성격을 표현하여 조화의 공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화정신은 불교의 초자연주의 정신을 말한다. 선화(禪畵)란 최고 경지에 있는 추상성을 말한다. 당의 손과정(648~733)은 서예를 평할 때 "상(相)을 흐르는 파도에 띄워서 장차 느리고 빠른 모양을 연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이란 마음의 뿌리요 마음은 천지간에 널려 있는 모든 사물마다 나타난 것이며 마음으로 인하여 사물마다의 형태를 깨달아 형을 창조하는 것이니 선화란 바로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고승에서 작품을 찾아 볼수 있고 송대 목계, 명말 팔대산인, 석도, 근래의 오창석, 제백석, 조선 김명국, 김홍도 등은 그 원조를 선화법에 두고 있다. 현대 한국화의 발상도 바로 이 곳에서 발원한다.

시·서·화 일체 사상이 있다. 이는 양화와 가장 다른 점이다. 한국화 속에 여백이 많은 것도 예술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작업은 한국화의 전통과 이질화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 지방의 문화에 관심과 그 아름다움을 표출하기에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통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해답은 없다.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구속일 따름이다. 다만 정신성에서 서구의 회화 체계에 깊숙이 빠지지 않고 우리의 혼백이 살아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너무도 지리하게 한국화의 전통을 말해봤다. 또 하나의 전통을 향해 갈 뿐이다.

꽃 비

이진숙



해바라기 / 지본채색 / 1998

(1)

꽃비가 내린다.
내 마음에
내 그림에

그리움이 흩날린다.
내 마음에
내 그림에

이 날이 가면 또 오려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날,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있으려나....

꽃비가 내린다.
내 머리위로
내 몸으로

이 날이 가면 또 오려나
마흔의 젊음이
아니 마흔의 아름다움이....

그리움이 흩날린다
내 눈위로
내 입술위로

이 날이 가면 또 오려나
보고 싶은 사람과의 입맞춤이....
그리운 사람과의 사랑이....

(2)

백일만에 태어났다.
녀석들이
오랜 진통이었다.
꿈틀, 꿈틀, 꿈틀 대기만을 수십차례 반복하더니....

물을 몇 동이나 들이켜더니
오랫만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녀석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녀석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진다.
정말 예쁜 녀석들이기에....
오랜 고통의 끝자리이기에....

녀석들이 내게 이야기 한다.
세상살이를...
그리고
부부살이를, 친구살이를.....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른다.
일년 남짓 소식없는 친구가
항상 생활에 부대끼며 사는 그녀가
언제나 나를 향해 팔 벌리는 아이들이....



산에는 / 수묵담채 / 1998

청록의 먹빛을 기다리며

서 진 숙

-서진숙 화백의 '산'을 보면서-

(남원 금지중학교 교사 한병옥)

나는 산을 좋아한다.

서진숙 화백은 산을 그린다. 그래서 난 서화백의 그림을 좋아한다.

산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그 육중함, 굽이치듯 흐르는 선, 하루 열두시간, 일년 삼백 예순날, 한날 한시도 같지 않게 변화하면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역설, 그저 그렇게 빗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같지 않은 산 .

서화백의 산은 그래서 다양하면서도 고뇌에 차 있다. 이 놈의 산을 도대체 어떻게 형상화해야 하는 것인지. 모양은? 색채는? 속내는?

서화백도 사람이면서 도회의 물 속에서만 살았고 지금도 산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도시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도회는 뒤틀리고 난폭하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다. 검지에 닿아있는 버튼 같이 위태롭다.

서화백의 그림 속에도 사람은 등장한다. 그런데 그 속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무리는 굳어있는 돌 같다. 자연에 녹아들지 못한 채 굳어 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찌보면 서화백의 산은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원색을 동원해서 산을 만들어도 보고 형상화 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서양의 추종으로 우리의 산은 표현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결국 먹으로 돌아왔단다. 불자의 참선이 각의 경지에 이르고 해탈의 지경에 오르듯 묵향, 그것이 한국의 산을 한국의 자연을 표현하는 구도의 길인 모양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그림은 어둡다, 고뇌와 번민에서 초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모양이다.

서화백은 붓을 잡기 시작한 것이 15년을 넘었단다. 어찌보면 긴 세월이리라. 그러나 서화백 자신이 아직 제 삶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으니 연륜이 길고 깊다 할 수는 없으리라 그런데도 그의 그림에는 고목의 뿌리가 깊은 연륜과 겨울 나뭇가지 같은 날카로움과 부처의 달관 같은 관조와 비구니의 고뇌가 엉켜 있다. 평생을 산에서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산에 대한 관조와 철학이 있다. 산에서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계절 변화하는 풀, 꽃, 나무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그 자연 속에서 생존의 법칙을 발견해 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이며, 그 자연과 생존의 법칙 속에서 달관의 경지에 이른 미소를 자아낼 수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그런데 아직 시집도 못 간 동정녀가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서화백의 그림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아무래도 내 눈과 마음에서 서화백에 대한 편견이 심한 모양이다. 도대체 서화백은 자신의 그림 속에 그러한 것들을 다 녹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담아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산속에 물고기 뼈다귀 몇을 그려 넣었대서 생존의 법칙을 표현해 냈다는 것은 지나침도 보통을 넘은 것이다. 꽃과 새와 잠자리가 구름과 함께 어우러졌다고 자연의 법칙을 표현해 냈다는 것도 과장 광고다. 그러나 작품의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핏빛으로 묻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도 선명하다.

그리고 이것만은 인정하자. 끊임없이 표현해내려는 그 열정, 그래서 끊임없이 앓어야 하는 고뇌의 정진,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1년이면 7~8회 이상을 전시에 투신하는 그 여린 몸의 정렬, 달관의 경지에 접근하고 있는 끊이없는 고뇌. 이만하면 대작을 잉태할만한 혹은 잉태했을만한 도량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머지 않아 죽음에 이를 산고 끝에 제왕을 다스릴만한 왕자를 출산 할만 하지 않는가.

머지 않아 서 화백의 먹빛이 청록색으로 푸르러질 날이 올 것이다 더더욱 푸르른 청록의 먹빛으로 빛날 그 날을 기다린다.

서예 와 조수미

김 두 경 (서예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서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예가 무엇이냐고, 또는 서예가 어떤 예술인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벼루에 먹을 갈고 붓에 먹을 적셔 종이 위에 쓰는 것이라는 것 이외에 얼른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쉬워 보이는 일도 막상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서예가 그만큼 보편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예는 우리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필기도구가 어느 정도 발달한 시절까지도 서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고 심지어는 교양 필수였고 인격 수양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 는 옛 어른들의 말씀에 연유한 까닭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선인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서예는 그림과 달리 문자를 표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림처럼 소재의 다양성이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표현의 한계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그 한계를 劃이라는 線의 質로서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다이빙이나 체조 경기를 볼때 해설자가 A난도, B난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난도, B난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이도를 의미한다면 고난도 연기를 무리없이 소화해내는 것으로 실력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착지하는 순간까지 짧은 순간에 공중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고난도 연기를 소화해 내는 것으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서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봅니다. 순간적으로 그어지는 획에서 누가 더 난이도 있는 획을 구사하며 미감을 줄 수 있고 나아가 풍속의 교화까지도 이룰수 있는 가로 서예의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서예인들조차도 별다른 구별없이 붓으로 쓴 글씨의 성질을 무조건 획이라 부르지만 본래 획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질 자체에 골격과 살을 맞추고 혈맥과 氣가도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생명에 높은 인격과 사상이 실린 선을 획이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이 생명이 있는 선이며 높은 인품과 사상을 갖춘 선일까요. 이것 또한 말로써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동안 이쪽 방면에 공부를 하거나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書如其人(글씨는 곧 그 사람)이라 하여 글씨란 人品과 동일시하고 서예를 공부하는 것을 인격 수양의 길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서예의 궁극적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서예의 미적 측면이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修身(자기수행) 이후에 齊家(가정을 돌봄) 이후에 治國(나라를 다스림)이라는 동양 정신의 핵심 사상을 보여 주는 예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예의 예술적 측면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서예를 문자 표현 대상으로 삼는 예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문자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문장을 표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해야 옳은 것입니다. 음악에서 노래가 문학과 음악의 만남이라면 서예는 문학과 회화가 만나서 이루는 예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예의 미적 측면은 문장의 아름다움과 품격에서도 찾아야 되고 그 문장을 이루는 문자의 아름다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자의 아름다움에서 추구한 것이 바로 劃(획)이라는 선질의 아름다움과 조형성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예에서 추구하는 획과 조형의 아름다움은 人品과 동일시되는 품격인데 그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성품과 다르지 않는 中庸의 道를 갖춤과 같습니다.

가득 차되 텅비어 있어 넘치지 않아야 하며 하되 함이 없는 무심으로 하여야 하니 때와 장소를 맞추

어 나아가고 물러남에 적절해야 하고 때문에 강인할때는 강인해야 하고 부드러울 곳에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크고 작고 굵고 가늘고 촉촉하고 깡마르고 좁고 넓고 빠르고 느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절도가 있되 없는 듯이 있어야 합니다. 서예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작품을 감상하며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비록 서예가라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획의 질, 즉 난이도에 관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예인들 중에서도 획의 질에 관한 것은 생각지 않고 오래 씀으로써 자연히 익숙해지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번이나 더쓴 나이많은 사람이 잘 쓴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을 출가한지 오래된 스님이 먼저 깨치고 목회 오래한 신부나 목사님이 먼저 깨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행을 먼저 했다고 깨치는 것이 아니듯이 서예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썼다고 꼭 잘 쓰는 것이 아닌 걸 보면 서예는 자기의 발견이고 수행이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예를 통한 수행으로 천지 자연과 사람과의 조화를 깨치고 그 얻은 바를 서예 도구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썼느냐 만으로는 서예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를 가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노력 없이 깨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만 깨침이 옵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만으로 깨쳐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설령 이러한 획을 깨쳐 얻었다 하더라도 글씨를 잘 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획을 얻는 것이 서예의 근본이지만 이밖에도 서예의 미적 측면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느껴야 되고 먹색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도서의 위치와 크기도 알맞아야 하고 종이의 질감이나 색상도 어울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 서예가 다른 예술과 다른 독특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서예가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서예의 단순한 표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자는 서예는 그것이 그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인리 풍경을 그린 화가가 여럿이어도 그것이 그것 같다고는 안합니다. 색감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기법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중인리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 작가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예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시인이나 문장가가 중인리를 읊은 시나 문장을 내놓았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서예 작품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많은 시인 문장가들의 수백편의 시나 문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시나 문장을 감상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구별이 될 까닭이 없겠지요. 그러니 그것이 그것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서체도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음에도 구별을 못하는 세상의 안목 때문에 서예는 그게 그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똑같은 문장 똑같은 서체로 쓰더라도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부른 어떤 노래가 어제도 부르고 오늘 또 부른다 해서 식상해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조수미가 부른 어제 노래와 오늘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서예도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서체로 똑같이 쓰더라도 같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작가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또한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다가 "앗 실수" 했다면서 중도에 멈추고 그 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부른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부를 수 없듯이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모저모 살펴 부족한 곳은 채우고 남는 것은 지울 수도 있지만 서예는 그때, 그 장소, 그 먹물, 그 붓, 그 종이에 그 기분으로 쓰이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의 것이 아름답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자라고 남고 엉망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능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좀더 깊은 애정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일에 분명 세계 무대로 가지고 나갈 것들이 무궁무진 하다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이산은 왜 명산(名山)인가.

진안문화원장 안 일

'진안' 하면 마이산이요 마이산하면 진안으로서 마이산은 가히 진안의 상징이다. 그러면 진안을 상징하는 마이산은 도대체 어떠한 산인가.

첫째. 마이산은 흙산이 아니고 돌산이다. 수성역암의 돌산이다.

"이고을에는 시멘트가 얼마나 많기에 콘크리트를 빚어서 산을 만들었느냐 해방 직후 미군(美軍)이 진안에 와서 마이산을 가 보고서 한 말이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다, '원더풀'을 연발하였다. 이와 같이 마이산은 수성역암의 암괴산이다.

둘째. 마이산은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다. 암마이산 숫마이산이라 불렀으나 앞으로는 아빠봉 엄마봉 새끼봉으로 부르기도 했다. 새끼봉이 아빠봉에 붙어 있는데에는 재미있는 마이산의 전설이 있다., 아득한 옛날 남산신(男山神) 여산신(女山神)이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승천(昇天)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여산신이 말했다. 캄캄한 밤중은 무서우니까 새벽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물길러 나온 마을 아낙에 들키고 말았다. 천기(天機)가 누설(漏洩)되어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 앉은 것이 오늘의 마이산이 되었다 한다. 여산신 말듣다 승천하지 못했다 해서 새끼봉을 빼앗아 아빠봉이 보듬고, 여산신 엄마봉은 수줍은 듯이 서쪽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국이다.

셋째. 마이산은 조선조 건국과 밀접한 역사적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산(靈山)이다. 고려 우왕 6年(AD.1380年) 남원 운봉땅에 침입한 왜구(倭寇) 아지발도(阿只拔都)의 무리를 무찌르고 개선길에 마이산에 들른 이성계가 마이산의 풍광(風光)을 보고 깜짝 놀란다. 지난날 꿈속에서 신인(神人)으로부터 금척(金尺)을 하사 받았던 그 산이 바로 마이산이 아니던가, 여기에서 이성계는 특별 기도를 올리게 되는바, 이 마이산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성계는 이미 조선조 건국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인(神人)이 금척(金尺)을 하사하면서 '네가 이 금척을 가지고 삼한강로를 헤아려라' 하는 꿈을 꾸었을때 이미 이성계는 자기로 하여금 이 땅에 새나라를 건설하라는 신(神)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금척을 꿈속의 마이산에서 받았으니 마이산과 조선조 건국과는 밀접한 역사적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이산은 권역은 크지 않지만 명산(名山)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특이한 명산이다.

지리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명산의 3요소는 문(門)과 굴(窟)과 동천(洞天)이라 한다.

마이산의 문은 천황문(天皇門)이요, 굴은 화암굴(華岩窟)이요, 동천은 마이동천(馬耳洞天)이다.

천황문이란 마이산 북부에서 남부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이다. 화암굴이란 아빠봉 아랫 부분에 있는 동굴을 말한다. 엄마봉 중턱에 올라 아빠봉을 바라다 보면 마치 남근(男根)을 조각해 놓은 것 같아서 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참으로 만상조화(萬象造化)의 묘(妙)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아빠봉 아래 부분에는 하나의 동굴(洞窟)이 있어 사시사철 맑은 석간수가 흘러 나오니 이름하여 화암굴(華岩窟)이라 한다. 이 석간옥수(石間玉水)를 마시고, 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리면 옥동자(玉童子)를 얻을 수 있다 하니 참으로 자연의 조화치고는 기가 막히게 에로틱한 연출이 아닌가. 오늘도 득남(得男)을 염원하며 기자례(祈子禮)를 올리는 간절한 여심(女心)이 이어지고 있다.

동천(洞天)이란 산천경계가 매우 아름답고 수려한 곳을 말한다. 마이산의 동천은 이산묘(餌山廟) 옆 용암(龍岩)에 주필대와 더불어 마이동천(馬耳洞天)이라 새겨져 있다.

다섯째. 마이산 남쪽에는 원추형(圓錐形)자연석 석탑(自然石 石塔) 80여가지가 있다.

마이산을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라 한다면 인간이 만든 다음의 걸작은 역시 마이산의 자연석 석탑군(石塔群)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라탑(新羅塔)도

아니고 고려탑(高麗塔)도 아닌 자연석 석탑군이 천지탑(天地塔)을 정점(頂點)으로 줄줄이 배열되어 있다.

마이산을 음양산(陰陽山)이라 한다면 탑 역시음양탑이라 할 수 있다 .이 탑들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조화에 맞춰 팔진도법(八陳圖法)에 의하여 배열 축조된 것이라 한다. 지난날 태풍 '사라' 호가 온 천지를 휩쓸었을때에도 마이산의 석탑은 흔들리기는 하였을지언정 돌 하나 까딱 하지 않았던 신비로운 석탑이다.

여섯째. 마이산 남쪽 엄마봉 중턱에 세계적으로도 희귀(稀貴)한 집단' 타포니' 가 형성되어 있다. 마치 파먹은 것처럼 생긴 둥근 모양의 얕은 굴들이 널려 있다. 이것이 안팎 기온차이에서 이루어 졌다는 소위 내외열차 풍화작용(內外熱差風化作用)에 의해서 형성된 '타포니' 이다. 일본 나라 대학의 '이께다 , 교수와 전북학생과학관 지학 연구실 강용석(姜龍錫)씨가 공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이산의 '타포니' 는 집중적으로 형성된 대규모의 '타포니' 로써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집단 타포니' 이다. 현재 일본의 각 대학 지학 강의(地學講義)에 진안 마이산의 '타포니' 가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 마이산에 대하여 약술(略述)하였으나 마이산 권역 내에는 금당사, 은수사, 탑사가 있고 부부시비(夫婦詩碑)와 이산묘가 있다. 남원에는 삼의당시비(三宜堂詩碑)가 있고 진안에는 부부당시비가 있으며 민족의 얼이 숨쉬고 있는 광복 운동의 성지(聖地) 대한이산묘가 있고 호남 최초의 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의병창의(義兵倡義)가 이루워진 호남의병창의동맹단결성지(湖南義兵倡義同盟團結成趾)가 있다.

1987년 8월 15일 제막된 '독립유공자 추모탑(獨立有功者追慕塔)이 고종황제왕지어필(高宗皇帝王旨御筆)이 암각(岩刻)된 비례물동(非禮勿動)아래 세워져 있다.

끝으로 진안 출신 허호석(許琥錫)시인의 시(詩)한 수를 이 글월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한다.

馬耳山 / 허호석

山山夫婦山
　하늘에 오르던 부부산

山中에山으로
　山中에 빼어나니
山中에靈山이라
　그 모습 장엄하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백팔번뇌 가슴가슴
　天地塔을 이루고
　천세만년 하늘을 우러러
　고고한 기상으로
　온누리의 염원을 받드는가

　구구구 산비둘기
　天皇門 기슭
　구름층계를 오른다.

　아! 하늘 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마이산 권역 내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1266호 · · · 금당사 괘불탱
천연기념물 380호 · 마이산 줄사철 군락지
천연념물 386호 · 은수사 청실배나무

지방문화재
지방 유형문화재 18호 · · 금당사 목불좌상
문화재 자료 122호 · 슴강사 석탑
지방 기념물 35호 · · · 마이산탑
지방 기념물 66호 · · · 마이산

전북회화

테 마 전

-마 이 산 을 찾 아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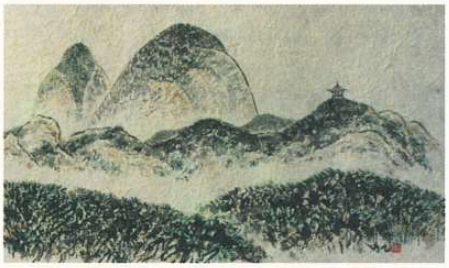
이환배



이철규



이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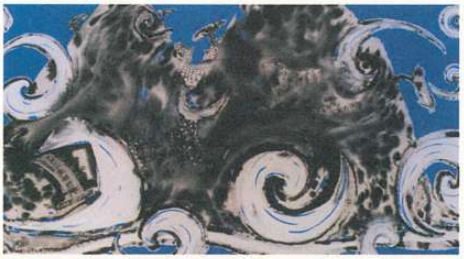
방정엽



안순금



문 순



정미현



엄기석



서진숙

전시기간:1998. 11.18(수)-24(화)
전시장소:얼 화랑
초대일시:1998. 11.18(수) 오후6시

마이산 기행

-답사안내: 안일 진안 문화원장-

1998. 8. 7

"답사코스 "

진안 -남부마이산-이산묘-금당사-탑사-부부시비



[안 일 진안 문화원장 안내]



[이산묘 '영덕전']



마이산은 ....



[탑사]



옛부터....



[이산묘]

마이산 素描



마이산 / 배접한지+수묵담채 / 1998

방 정 엽

깊어가는 가을
찬 바람이 인다.
소나무숲 너머로 건너다 보이는 馬耳山의 봉우리는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수많은 傳設과 유래를 갖고서 몇 천 몇 만년을 고즈넉한 자태로 돌아앉은 山 !
乘天하지 못한 부부의 恨을 앉고 달리지 못해 쓰러진 말의 귀만이 알고 있는 王朝創業의 비밀.
李太朝는 주필대에 앉아 무엇을 구상하였던가?
왕조 창업의 正當性을 이 자리에서 생각하였던 것일까?
君王이 머물던 곳,
이제 들풀만이 무성하고 돈들인 비석은 그 흉물을 더하여만 가는데, 무심히 지나치는 여행객들의 무관심에 세월이 恨스러울 뿐이다.

天 馬 東 采 勢 已 窮
천 마 동 채 세 이 궁
霜 蹄 未 涉 蹶 途 中
상 제 미 섭 궐 도 중

천마가 동쪽으로와 형세가 이미 궁하니
흰털 말발굽 더 건너지 못하고 도중에 쓰러졌네



마이산 / 수묵담채 / 1998

세계 유일의 음양신이라

서 진 숙

도예원에서 작업을 마치고 대충 손을 씻고 바지 가랑이에는 흙을 묻힌채 우리 일행은 마이산을 답사하기로 해 일정대로 마이산을 향해 출발했다.

진안 문화원에 들러 문화 원장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에 차를 대고 원장님을 기다렸는데 흰 백발에, 흰 모시 저고리, 건장한 체구, 한 손에는 다리가 불편하신지 지팡이를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젊으셨을 때는 꽤나 인기가 좋았으리라.... (팔순에 가까운 지금도 멋있으니까)

산굽이 돌고 돌면
어느새 세상이 발아래...

탑사로 들어가는 벚꽃길, 탑사 미처 못가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이산묘가 자리잡고 있었다. 마이산을 여러번 와 봤지만 한번도 이산묘에는 들른 적이 없이 탑사만 구경하고 온게 전부였다. 항상 무심코 지나쳐버린 이산묘에 들러 이곳, 저곳에 얽힌 사연을 원장님을 통해 들었다.

한말에 왜놈의 침략이 노골화됨에 면암 최익현이 회문산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이석용 의병장은 이곳에서 300명의 의병을 모아 [의병 창의 동맹단]을 조직하고 바위에 말을 잡아 그 피로 제사 지냈던 곳으로 의의가 큰 곳이라 한다.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산을 하나만 지적하라면 진안 마이산을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해발 400-500m의 고원지대에 말귀 모양으로 뾰족하게 솟아 마치 마천루와 같은 이 산은 남쪽 기슭에 탑사와 더불어 신지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숫마이산과 암마이산은 두 봉우리의 기이한 형성에 마치 큰 돌들이 시멘트로 버물러 굳어진 것과 같은 이색적인 멋이 있고 필경 男左女右의 형상이리라. (어느 일본 광광객은 마이산을 보고 한국은 시멘트도 많다고 했단다.)

마이산 남쪽에 위치한 탑은 이갑용 처사가 10여년동안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높이가 15m 짜리도 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기는 하나 무너지지 않은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마이산은 여러가지 전해오는 전설과 더불어 경내에 있는 탑사, 운수사, 국당사, 복수사를 비롯 이산묘등의 문화재들을 자연의 경관과 어울려 앞으로 세계인의 몰려드는 명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무더운 여름날,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닦으시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던 안 일 원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며 이처럼 열심히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이러한 분들이 가시고 나면 또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될까? 조금은 걱정이 앞서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마이산 기행을 마치고 나서 -



마이산-풍경 / 수묵담채 / 1998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안 순 금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벌써 가을이 깊었음을 알게 해 준다.
몇 안되는 나뭇잎이 달린 감 나무에는 다홍빛이 감도는 감이 달려있고
가지 사이로는 안개가 막 걷히고 새벽의 차가운 기운을 마신 아침 마을이 보인다.
조용하고 평온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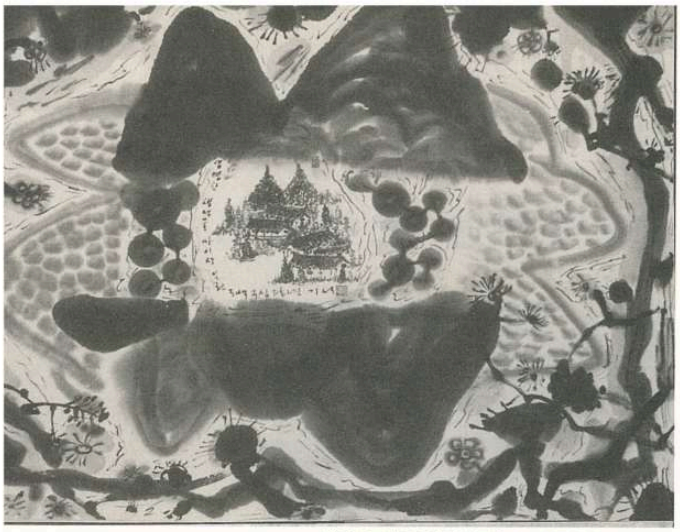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좋아했던 전혜린이라는 여자는 가을을 싫어했다.
그렇지만 나는 가을이 좋다.
그것도 요즘같이 바람이 차갑고, 나뭇가지가 다 드러나 보이고,
흙갈색으로 변해가는 가을이 · · ·

생활에 쫓기며 생각 밖으로 멀리 접어 둔 채 지내다. 문득 혼자 조용해지면 작업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화선지 위에서 번지는 수묵이 주는 느낌이 좋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모두 꺼내어 붓 끝으로 가져간다.
투명하리만치 얇은 화선지 위에 선 하나만을 그어도 좋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게...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우리가 생(生) 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生) 이 우리를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던가.
이 말을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다니던 가을이 또 깊었다.



생명산.생명물(마이산) / 수묵담채 / 1998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3

엄 기 석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 우물로부터 나오는 물, 우묵한 곳으로부터 솟아나온 물을 언급한다. 에스겔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점차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강이 되었다는 비유가 있다.

신약 성경 요한 복음에서도 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전통적인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얻기 위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의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의 강이 언급되는데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말한다.

생명 강이 흐르는 곳은 마르고 탄 땅을 적시며 죽음의 물들을 치료한다. 강이 흐르는 곳은 모든 것이 살고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 강의 흐름은 과실과 생선과 가죽을 산출한다. 이러한 적심과 치료하심은 생명을 산출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내가 관심있는 것은 생명의 이야기다. 영원한 흐름이 있는 생명의 노래이다. 화선지 위에 먹물이 지나갈 때 흐르는 산을 그린다. 흐르는 물을 그린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전주에서 남원까지의 출퇴근 길에 수많은 산과 물을 만난다. 그리고 마음 속에 산과 물을 간직해본다. 이 구간은 안개가 많은 지역으로 운전에는 불편하지만 안개 속에 피어오르는 산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나는 이런 아침을 좋아한다. 안개 속에서 드러나는 산이 있기에, 계속 달려도 연이어서 다가오는 산이 있기에 또 물이 있기에, 또한 감사함으로 흐르는 생수가 있음으로 오늘을 산다. 미술실에 들어가니 뒷산에 까치와 이름 모를 새들이 나를 반긴다. 내가 만난 산들과 물의 흐름을 그린다. 꽃도 그린다. 나를 반기는 새소리를 그린다. 나는 내 이야기가 생수를 주는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지나친 욕심일 게다. 그러나 하얀 화선지 속에서 생명산을 만나고 흐르는 시내에 타락한 욕망을 씻어 내고 고요를 깨트리는 새소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꿈을 그리고 싶다.

1998.11.3. 엔게디에서

이 철 규

그 독특한 형상과 돌탑만을 모티브로



옛날에는-마이산 / 지본채색 / 1998

사실 전주에서 살아온지 15년이 되었지만 마이산을 제대로 둘러볼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 다만 마이산을 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는 진안 군내를 잠시 들렀을때나 혹은 지나칠때 먼 거리에서 본 것이 고작이었다. 마이산에 대한 느낌이라고는 그 형상에 의해 아! 저 산이 마이산이로구나 하는 시각적 느낌만 다가올 뿐이다.

이번 전북 회화회 정기 전시회가 마이산을 주제로 한 전시인 만큼 한 번 정도는 둘러보고 마이산이 주는 정감과 그 내력을 알아봄 직 하나 게으른 나의 성품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작품을 제작할 때 마이산의 그 독특한 형상과 돌탑만을 모티브로 삼을 수 밖에 없었는데 마이산이 주는 어떤 정감과 내력을 시각적인 것과 함께 표현할 수 없어서 서운할 뿐이다.



바람소리-마이산
혼합재료 / 1998

갈 색 추 억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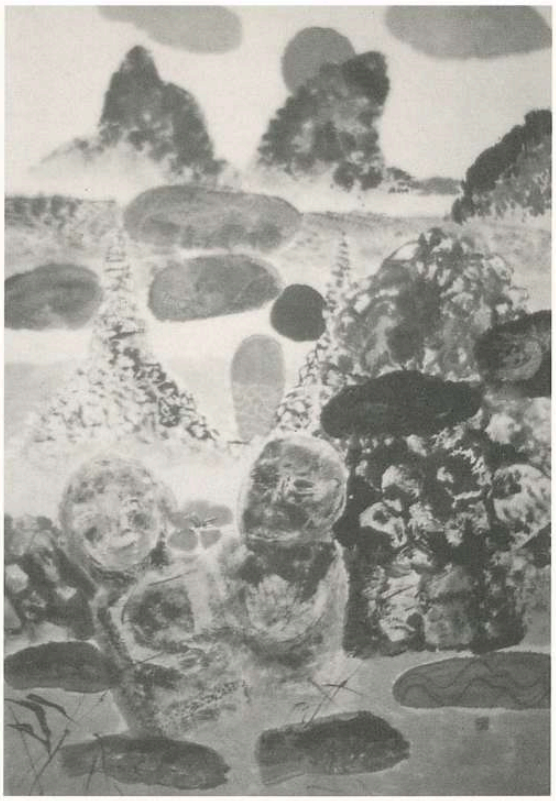
이 환 배

하늘과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조용하여 소리가 없구나
하지만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침을 꿀꺽 삼키는 것과도 같고
깊은 생각 속에 잠길 때
침묵에 빠져드는 것과도 같다네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조용하여 소리가 없구나
창공의 별들도 고요하고
조용한 호수며 산기슭 또한 고요하다네
온갖 것은 거세게 불타는 목숨의
한 점에 뭉치지
한 줄기 빛, 한 점의 바람,
한 잎 나뭇잎까지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
아니 모든 것은 (존재)의 일부
온갖 것은 만물을 창조하여
지킬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네.
- 바이런 시편 中 -

스쳐 지나가는 버스 사이로 낙엽들이 금모래 부셔지듯 뒹굴면서 번쩍 번쩍 빛을 내고....
어느덧 가을풍경은 서른 하나의 사내 가슴을 서서히 갈색 추억으로 수놓고 있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면

이 승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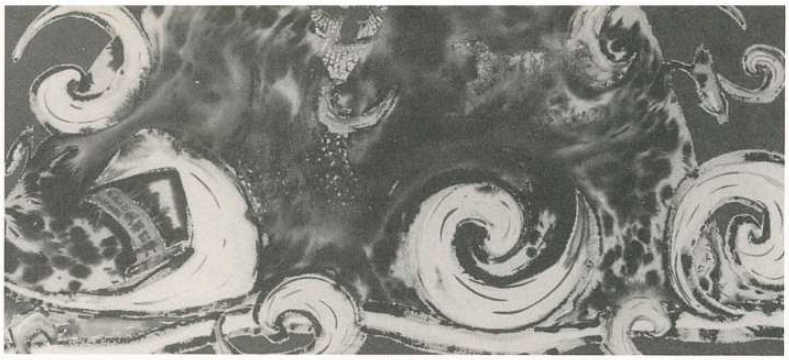
마이산기행 / 지본채묵 /.1998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면 그를 따르라, 비록 사랑의 날개 속에 숨은 칼이 상처받게 할 지라도." 칼릴 지브란이 한 이런 말은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예리한 눈에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부터 맺고 말을 시작해보자. 감상자와 작가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그림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감상자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준다. 그것도 파악하면서 작품에 임해야겠다. 따라서 진안의 마이산을 예리하게 포착을 해야겠지만 그 가슴은 뜨거워야겠다. 사랑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의 정서요, 그것을 가슴으로 안아본 작가의 마음이라고 본다. 내가 어떤 만큼 그것을 보았는지는 또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피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피고 그 마음으로 하나의 작품을 잉태해야 겠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보면서 조선의 발원은 이 진안 땅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면면히 그 정신은 흘러서 오늘에 온다고 본다. 조선조 창업의 영산으로 대접을 받은 것이 그렇고, 의병 운동이 처음 시도 된 것도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도 있었으며, 김 구와 고종황제의 친필등 고금의 흔적이 오늘날 전해져 여행하는 이의 발목을 붙잡고,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것이 색다르다.

우리 회원들은 마이산을 답사하였다. 향토 사학자를 모시고 둘러본 마이산은 그저 자연이 만든 기괴한 산 하나쯤으로 생각해서는 오산이기 쉽다. 조선 태조의 시비가 있는 마이산 발치 입구에서 그 영험함을 맛보았다. 주필대, 마이동천, 단군왕검과 이태조, 세종임금, 고종황제를 모신 이산묘, 회덕전, 영모사를 거쳐 부부시인 기념비에 들렀다. 마이산이 부부산이듯, 담락당 하립과 삼의당 김씨 부부시인의 기념비가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생년 생월 생일이 같게 태어나 함께 결혼하여 시로 화답하며 살았다 한다.

수성역암으로 된 마이산이 드디어 보인다. 멀리서도 보이지만 안으로 찾아들면 음양이 잘 화합하는 자연석으로 쌓은 원추형의 탑들이 나온다. 이 곳에서 여정은 끝났지만 그 속내를 알아보면서 답사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음양화합의 기를 마신듯하다. 인생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상처에 숨쉴 곳 없다 하지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인 사랑이 있다. 그 힘을 이곳에서 찾아보는 것도 후회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본다.



穎山(영산) / 천에 수묵채색 / 1998

불쑥 솟은 영험함이여 !

정 미 현

수업시간, 창문안으로 파고드는 한 낮의 가을볕은 깊고 그윽하다. 볕이 쬐이는 창쪽으로 등을 돌리면 귓볼 뒤로 따스한 볕이 얼굴에 드리워진다. 온몸이 나른해진다. 창으로 비추이는 깊은 가을볕에 가슴은 여지없이 뛴다. 산에 가고프다. 산으로 가고프다. 산속에 들어가 흙을 밟고 서서 나무냄새, 구름냄새, 물냄새를 맡으며 걸어가면, 어느새 성급한 낙엽이 한켠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신바람이 난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세상 한 가운데 서서 "인생은 요럴때 꿀맛이야"라고 감탄해 마지 않겠지.

2년전 이맘때쯤 진안 문화원에서 마이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아침부터 내린 비는 산행하기에 그만이었다. 물기를 적당히 먹은 자연의 빛은 그야말로 생동감 넘치는 감동이었다. 오후엔 적당히 비가 개이고 무르익은 가을의 단풍 향연은 우리의 일행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마이산은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명산이다. 모양은 말의 귀모양처럼 두개가 나란히 불쑥 솟아 있다. 그 모양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지만 그 명산은 지층의 융기 현상으로 먼 역사 저편에 잠들어 있다가, 이 세상의 빛에 이끌려 솟아오른 강인한 힘을 소유한 명산이 아닌가 싶다.

마이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96년 '전북의 문화유산, 테마전에 실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새삼 마이산의 여러 설명은 하지 않으려 한다.

나에게 마이산이 자리한 진안은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쌓여 있는 곳이다. 언제였던가. 아마 2월 대보름 달을 보기 위해 마이산 언덕에 올라가 커다란 보름달을 가슴에 안았던 그 밤은 내내 신선한 충격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내 평생 그렇게 크고 선명한 달을 가깝게 만나본 기억이 없다. 지금도 그 달빛은 내게 크고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정천에서 진안 여고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이산의 두 봉우리가 힘차게 솟아보이는데 그 언덕 마루에서 보는 마이산의 자태가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인 듯 싶다.

평평한 대지 위에 불쑥 솟아오른 마이산 봉우리는 기이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이산의 음푹한 기슭에 쌓아 올려진 돌탑은 영험함마저 갖게 한다. 어떤 이치로보나 그처럼 크고 높은 돌탑이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음은 마이산이 지닌 영험함을 온전히 보여주는 듯 하다.

전북의 산하는 모두 아름답고 진기하지만 마이산은 조형적인 기이함과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영험함을 지닌 전북의 보물로 자리매김 하기에 충분하다.

이 가을이 가기전에 다시한번 마이산을 찾아야겠다. 나의 그리움을 묻어놓고 온 진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겨울을 맞이하면 조금 더 따뜻한 가슴을 지닐 수 있을것 같다.

겨울 숲에서

박 남 준

문득 떠오른다. 지난 일 년의 시간들이 때로 아주 천천히, 천지의 기운이 변하여 풀잎에 이슬을 피워놓듯 혹은 너무나도 빠르게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내게 오고 떠나가며 들떠서 일렁거리게 하고 암담으로 빠트려 잠기게 했다.

봄은 서러웠으며 여름은 잔인했고 가을은 쓸쓸했지. 그리하여 이제 겨울 숲을 걸어가며 생각한다. 작은 꽃 하나 그 꽃이 진자리 붉고 푸르던 것들이 떨어져 갈잎의 낙엽을 융단처럼 이뤄놓은 겨울 숲을 가면, 이 숲이 스스로의 흥망을 이루며 살아온 오랜 잠언의 소리가 들려오며 나를 깊이 잠기게 한다.

이제 곧 추위가 시작되고 긴 겨울이 오리라. 단풍의 숲은어느덧 가고 사랑을 위해 온통 내달려갔던 지난 일들은 더러는 쓸쓸한 술잔이 되어 쓰러져갔다. 더러는 나락으로 자폐되었으며 역류하며 일그러져 갔다.

그리하여 춥고도 어둡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햇빛의 문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까. 뜨겁게 타오르던 나무들은 땅속 깊이 슬픔의 뿌리를 내렸는지 살아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인데 · · ·

상처는 뒤틀린채 몽유의 길로 헤매이고 겨울 숲에 누워 나는 술에 빠져 있다. 바람의 숲이며 마지막 불꽃이여 설레이는 술잔 기울이며 단풍으로 붉겠다던 시절이 옛날이었는지.

사는 것이 참으로 덧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잣 미망에 지나지 않은 이 삶의 어디를 나는 이처럼 목매어 하는 것인지, 얼마전에 한 친구가, 이 땅에는 왜 자살한 시인이 하나도 없느냐고 했는데 그 말, 자살이라는 단어가 빛나는 유혹으로 부르르 떨게 했다.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때 자살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만.

참으로 오랫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도 자신을 뒤돌아 살펴보며 세 번을 살펴보며 세 번을 반성했다는 옛 성현들의 삶을 생각하면 까마득히 부끄러워져서 식은 땀이 날 것 같다.

요즈음 들어 거울을 보는 버릇이 가끔 생겼는데 나이 사십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이겠지. 찌들고 추하게 변해 가는 느낌이야.

세상이 병들게 하고 술 마시게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막막한 우리들 삶의 이면에도 아름다운 것들, 이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감싸줄 훈훈한 사랑의 일들도 있겠지. 건강하기. 좌절하지 않기. 전북일보

(작고 가벼워 질때까지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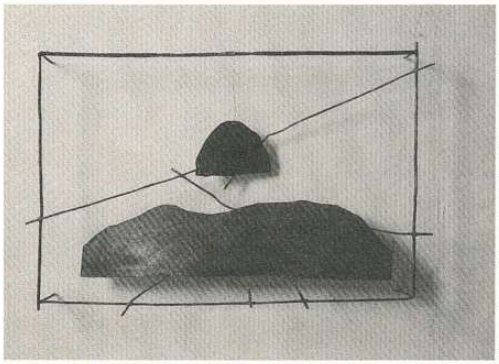
박남준

1957년 작은 바닷가 마을 전남 법성포에서 태어났다
1984년 〈시인〉지를 통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으로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 노래)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등이 있다

장귀순 개인전을 보며

-멋진 작가인생의 꿈을꾸며 만난 15년-

정 미 현



동선,동판 / 1998 케치

장귀순 작가와 나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4년 어느 봄날, 장과 난 학과 야외스에 참여하기 위해 송광사로 가는 버스편에서 나란히 앉았었는데 그것이 첫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다. 그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대학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서로 직감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미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데서 오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던 듯 싶다.

그후 몇달, 끊임없는 도전과 갈구의 열병을 앓고 있었던 장은 학교를 휴학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잠적하고 말았다. 다음해 장은 복학을 하였고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되었다. 장과 난 삶에 있어 남다른 세계를 추구하며 열정적인 토론 속에서 마냥 즐거웠고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곤 하였다.

장과 난 개인 작업실을 가지기를 항상 갈망했었고 시간이 나는대로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들을 찾아다니곤 하였다. 하지만 싼 값의 작업실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었다. 왠만큼 허름하고 값싼 건물에는 어김없이 그림쟁이의 보금자리가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화실 풍경과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옥상 건물 위의 10평 남짓되는 장의 화실 풍경은 진지하고 정겨웠다.

· · · 5년

졸업을 하고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그는 독일이라는 먼 이국 땅으로 유학의 길에 오른다. 그의 끝없는 도전과 정열은 또 한번의 헤어짐을 낳고, 장과의 우정을 그리움과 편지로 달래야만 하는 세월이었다.

· · · 또다시 5년

어느날, "따르릉~", "여보세요", "나 장귀순", "지금 어디야!", "음- 전주", "돌아온거야?", "응"

몇년전 너무도 반가웠던 한통의 전화가 떠오른다. 왜 그리도 기쁘고 뿌듯했는지! 장은 20대를 자기의 세계와 놓여진 현실, 또다른 열정에 휩싸여 힘겨루기를 하며 많은 삶의 질곡 속에서 작업이라는 줄기를 부여잡고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살아온 친구임에, 그런 그의 신화적 삶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리라! 장은 언제나 또다른 선택에 두려움이 없었다.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신의 삶에 도전할 것이다.

이제 장과 나와의 이야기는 이쯤 접어두고 그의 작업 얘기를 하고 싶다. 장이 독일로 떠나가기전 89년에 장과 함께 첫번째 개인전을 열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젊은 초년 작가가 개인전을 여는 일은 전주에서 좀처럼 보기드문 일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장은 흙을 재료로 불과 생성에 대한 좀더 향토적인 절박한 느낌의 조형성을 추구하는 작업에 몰입해 있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두

번째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작업의 소재가 흙이 아닌 동과 철 등의 금속성이었고 투박한 덩어리가 아닌 선과 면의 회화적 입체 드로잉 기법을 보여 주었다.

장과 난 전공 분야는 달랐지만 장은 언제나 묵향과 여백, 그리고 선의 동양적 미학에 깊은 매력과 관심이 있었다. 그런 탓인지 오랜 외국 생활 속에서도 장은 동양적 심미감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적 미학을 뚜렷히 이해하고 느끼는 듯 하였다. 이번 우진문화공간에서 가졌던 개인전을 통해 그의 동양적 자연주의 정서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산의 능선들과 강, 저 파란 하늘 속에서 자란 것이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먼 타국과 도시의 빌딩 숲에서 방황했던 나에게 이곳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구석진 변방이 아니었다. 이 곳이 바로 내 삶과 온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현대성이라는 괴물은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전방 위에서 우리의 삶을 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내 작업의 정체성은 나의 삶이 우리의 자연과 역사와 함께 할때에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이처럼 장의 작가 노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감성의 국적을 알고 있는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는 오히려 외국 생활을 통해 더욱 절실히 감성의 뿌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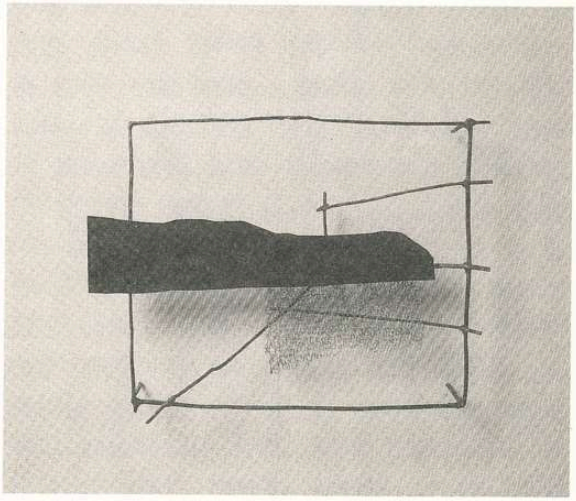
작가에게 있어서 민족적 정서에서 발현되어지는 미감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미의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장귀순의 이번 작품의 전반적 조형 성향은 예년의 작품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으나, 테마의 모티브가 좀더 자연과 친화적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작품의 주된 구성력은 2차원의 벽면과 3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면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조형적인 드로잉 기법의 독특한 연출에서 느낄 수 있다.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드로잉이 아닌 동과 동선이라는 재료의 반 입체적 조형을 통해 벽과 공간,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어우러짐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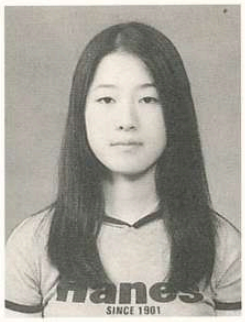
산의 능선, 그리고 그 물빛 위로 쏟아지는 그림자 사이사이 어우러진 공간의 무한함을 그는 거칠고 강한 도심 속에다 가져다 놓는 대담함을 보인다. 어떻게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는 언제나 강한 정열의 소유자인 듯 싶다가도 본질 속엔 부드럽고 소박한 정서를 잃지 않았던 감성의 소유자였었다.

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시대적 착오에 혼돈되지 않은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는다.

지금도 장은 섬진강 줄기를 바라다 보며 땀과 혼을 다해 작품 세계에 몰입해 있을 것이다. 그의 장인정신과 그의 작업에 대한 끝없는 열정은 좋은 작품으로 그를 자리매김 할 것이다.



동선,동판 / 1998



정 수 미

정미소 .길 .현대인의 고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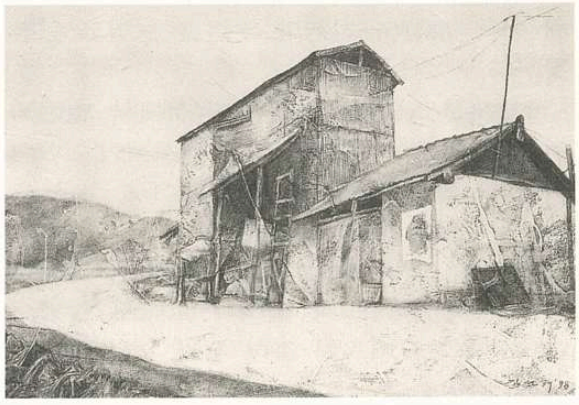
(김선태전을 보고난 후···)

황금빛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장의 분위기는 좋았다. 또 한편으로는 고개숙인 벼처럼 진지하게 가라앉은 무거움도 느낄 수 있었지만 전시회를 찾은 여러 대학생들의 자유로움이 실내 분위기를 밝게 해 주었다. 이전시회는 예원학교 김선태 선생님의 2번째 개인전이였다. 중학교 건물에서 선생님을 몇번 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미술 선생님인 줄은 몰랐다. 큰 키에 체격이 좋아서 체육선생님 정도 되나보다 했는데, 개인전 팜플렛을 보게 되었고 그림이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쁜 시간에 쫓겨 전시회 갈 시간이 부족했지만 꼭 보고 싶었던 전시회라 어렵게 전시회를 찾아가 보았다.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정미소만 나오는 그림이 반 이상이었다. 전라도 각기 다른곳의 정미소였지만 모두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들이었다. 곧 수몰 되어질 운명에 담담하면서도 서러운 심정을 느낄수 있었던 효자 정미소는 가까운 효자동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욱 애착을 느끼게 했다. 진안 용담댐 수몰지역의 진안 정미소나 도심속에 갇혀버린 효자정미소는 호남 곡창지대로 유명한 전라도 농촌사회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새벽녘 이슬맺힌 풀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노을이 져 해가 넘어가면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 했을 순박한 농민들. 이들과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했던 정미소였지만 이제는 그 추억과 흔적을 남겨둔 채 사라지려고 한다. 그런 안타까움에 그림으로나마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으신 선생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서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했던 따뜻한 사회도 무너진지 오래이다. 사람들간에는 불신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또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생활에 자아를 상실한 의욕없고 초점없는 얼굴들, 바로 현대인의 초상일 것이다. 소외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옛것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어루만져 치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을 간직한 광대, 그 삐에로의 얼굴은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관념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 사회제도에 저항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인이 되어서 맑은 눈망울로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선생님은 영화를 좋아하신다. 서편제에 등장하는 청산도 당재 언덕의 인상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옮겨 놓았다. 애절한 한과 혼이



평촌 정미소 / 장지에 유채 / 1998



진안 정청 망덕정미소 / 장지에 유채 / 1998

담긴 소리가 들리는 듯한 서늘한 그림이 영화속의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서양의 아름답다는 그 어느 풍경도 우리 정서에 맞는 흙내음 물씬 풍기는 맛깔스런 풍경에 비길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림의 한 요소로 존재하기 이전에 흙에서 나고 흙으로 인생을 살아간, 또 흙으로 돌아간 농민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고향가는 길'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먹고 붉은 황토흙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탄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다.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자아상실의 문제에 직면한 현실속에서 내 생활을 돌이켜 보았다. 나 또한 그들처럼 따분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해진 길로 가다보면 나를 점점 잃어가고 남이 정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아런 생각으로 답답해지면 고향가는 길을 따라 흙내음을 맡으면서 농촌으로 가는 상상을 할 것이다. 정미소가 있고 물들지 않은 순수로 가득한 곳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순수함으로 선생님과 같이 아름다운 옛 흔적들을 그려보고 싶다. 입시의 무거움 속에 허덕이다 보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기계적으로 생각없이 그림을 그리다보면 슬럼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것 같은 때도 있다. 그렇지만 훗날 내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때 지금 배운 그림의 밑바탕을 고마워 할 것이다. 내 그림의 완성을 위해 기초를 닦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배움의 자세를 계속해서 지켜야겠다.

-전주 예술고 미술과 3년 -

전북 회화회 도예 캠프

- 흙 이야기 -

1998.8.6-8.8
장소; 백제도예

엄 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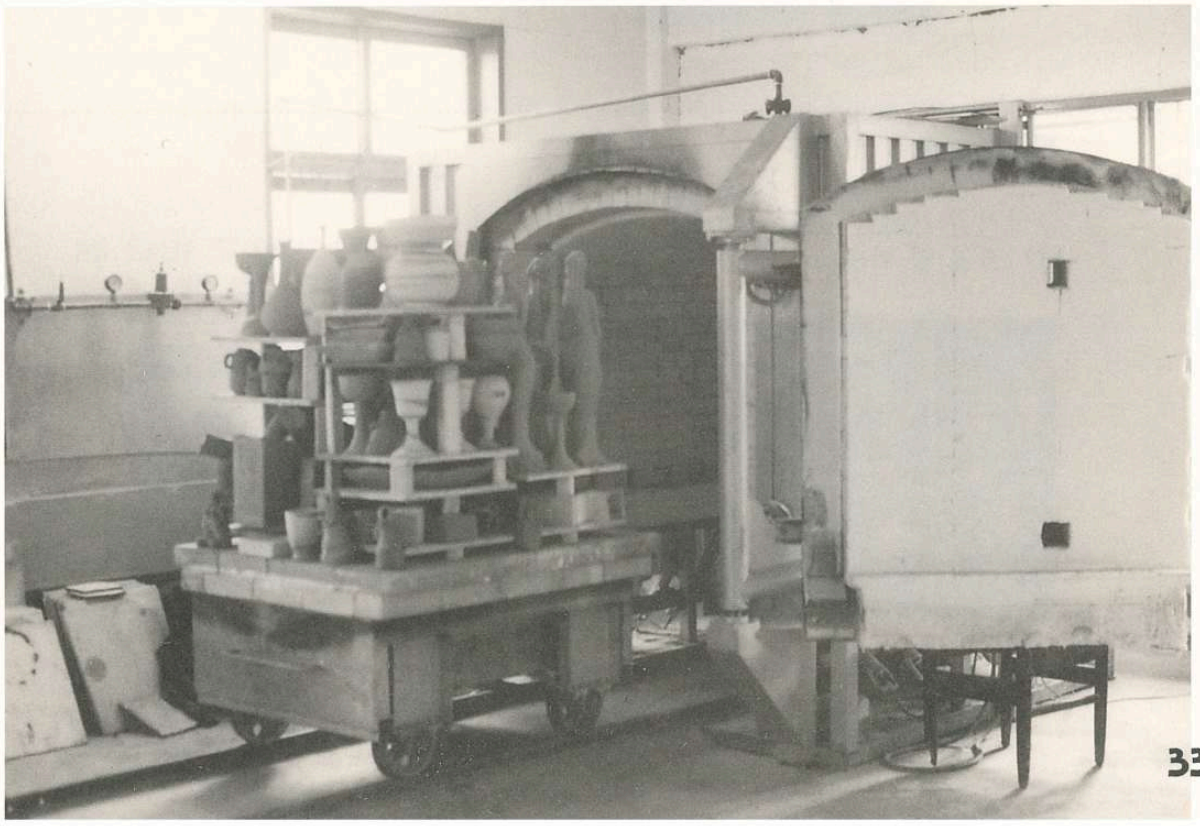
사람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인가, 흙을 만지는 시간은 마음이 편안하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 몸과 마음에 느껴질때 잔잔한 음률을 느낀다. 흙은 우리 마음의 본향이라는 느낌을 나는 매번 흙 작업을 통해 확인하곤 한다.

여름 휴가중, 틈을 내어 들른 도자기 공방에서 만난 회원들 모두 진지하며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 뿐인가, 엄마 아빠를 따라온 아이들도 한웅큼 흙을 쥐고 미소가 넘친다. 선생님 말씀에 한눈을 팔지 않는다. 고사리 손으로 인형 만들고, 그릇 만들고, 패널 만들고 아이들도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작업에 열중이다. 우유빛으로 뽀얀 백토, 도전적인 적토, 논에서 막 올라온 것 같은 흙토, 흙은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매력적인 놀잇감이다. 우리 어렸을때도 땅바닥 흙 위에 손가락이나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다. 산도 그리고 물고기도, 엄마, 아빠, 친구의 모습도, 어떤 때는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그리고 지우곤 했던 기억이 있다. 화선지에만 그림을 그리던 회원들로선, 나름대로 빚어낸 그릇 위에 형상을 새기는 것 또한 새로운 설레임이었으리라. 그러나 한편 회원들에겐 너무나 시간이 짧고 벅찬 작업이었다.

몇해전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서 여러 나라 도자기를 관람한 적이 있었다. 각기 나라 그 민족의 정서와 작가의 취향이 느껴졌다. 허나 역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려청자, 담담한 비취빛 어우러진 들꽃 문양이 돋보였다. 선조들이 그려낸 상감청자의 속도있는 칼맛과 정교하고 균형있는 조형미, 분청사기의 끊임없는 기운찬 붓질과 먹빛의 조화, 조선 백자의 담담하고 소박한 순백미는 항상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 나이 먹으면 한적한 시골에 도자기 공방 갖는 것이 꿈이야 그때 놀러와서 도자기 만들고 그림 그리며 옛일을 회상하자구" 하는 말은 했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선조들의 흉내는 커녕 마음 한 구석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자기는 흙과 불에 대한 오랜 숙련과 이해가 필요한 작업이다. 흙을 고르고 유약을 배합하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많은 전문적인 작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어쩌면 부수적인 작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짧은 흙과의 만남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과 창작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김용석전

전시기간:
1988. 10. 28
~11. 3
전시장소:
갤러리,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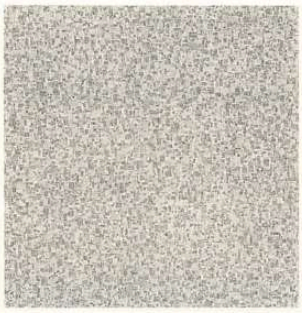
김성균전

전시기간:
1988. 11. 6
~11. 12
전시장소:
전북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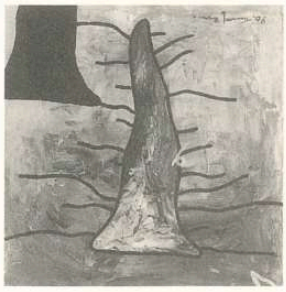
배기병전

전시기간:
1988. 10. 30
~11. 5
전시장소:
전북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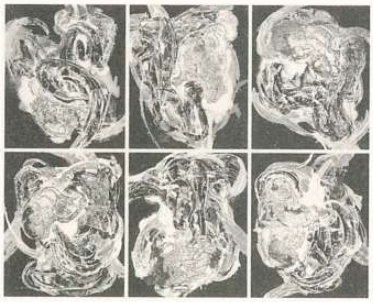
표영용전

전시기간:
1988. 9. 9
~9. 15
전시장소:
관훈 미술관



차유림전

전시기간:1988. 11. 4~11. 10
전시장소:얼 화랑



유대수전

전시기간:1988. 2. 18~2. 24
전시장소:담 갤러리



최유경전

전시기간:1998. 5. 22~5. 28
전시장소:우진문화공간



송창애전

전시기간:1988. 9. 16~9. 22
전시장소:공평아트센터



현대미술작가선집12
21' 현대조형작가편

전시기간:
1988. 11. 5
~11. 14
전시장소:
지현갤러리



온고을 그림꾼

1998. 여름. 제4호

발행:전북 민족 미술인 협의회
-채우승과 그의 신비에 대한 그리움 仲-



'98 실체와 허상전

전시기간:1988. 10. 30~11. 5
전시장소:전북예술회관
참여작가:이철규, 전호권, 이정근, 신현국,
이승대, 송상선, 이선화, 윤 호,
홍성훈, 한세윤, 김수영, 송정경,
박신혜, 김영아, 임대준, 은영창

현대회화의 원초성

전시기간:1988. 7. 31~8. 6
전시장소:전북예술회관
참여작가:권석만, 김승호, 김은실, 류일선,
박신혜, 박지은, 배기병, 여태명,
이동섭, 이지현, 이철규, 이철량,
이택구, 이혜숙, 김 향, 정미현,
지민수, 표영용, 허주아

전북지역 화랑가 안내

서신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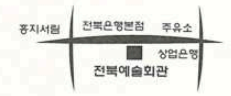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2-2 새터 B/D B1 전화:255-1653
관장 이름:박혜경
curator:조병철
대관료:유료대관-월1회 실시 1일 10만원 (7~10일 상시접수)
99년도 기획행사 -1, 2月 젊은 미술가가 30名의 자화상전
-4月 근대 미술가 조명 기획
-6月 여성 미술가 3인의 세계전
-10月 큰 전시 기획 ex)작고 화가 中
지속적으로 봐야 할만한 작품전시
무료대관:포트폴리오 심사(매년 12월 1달간 접수)
초대전-년6회(1전시당 각 100만원 경비지원)
기획전-상·하반기 2회 실시
전시면적-본 전시장(약 40평)/아트샵(약12평)
개관년도:1997. 10. 1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3人의 삶과 예술의 세계, 두개의 눈 두개의 창

한마음 갤러리



주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8-9 전화:220-1200(원장실)
관장 이름:최경수(원장님)
대관료: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소정의 작품을 감사의 표시로 증정할 수도 있음
평수:7층 전시실 13평에 병원 전체에 전시가능(복도)
개관년도:1996. 12月
99년도 기획행사:1月 소나무 그림전, 6月 이후 산 그림전(7,8月 예정)

전북예술회관



주소: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104-5 전화:284-4445, 286-2679 Fax)286-2678
관장 이름:양용묵 (12月이후 바뀔수도 있음)
대관료:평당 500원
평수:1층 1실(96평)·2실(57평)
2층 1실(66평)·2실(47평)·3실(47평)·4실(33평)
개관년도:1982. 2. 9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국립현대 미술관] 소장작품 전시
99년도 기획행사:향토 작가 기획전(예산 확정후-12月이후)

삼성문화회관



주소:전주시 덕진구 적진동 1가 664-14
전화:1층 270-2241
2층 270-2459 ARS안내 252-9400
관장 이름:전북대 물리학부, 기획실장. 박충웅 교수
curator:정주철
대관료:1日기준 대관료 10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7만원, 냉난방기 9만원
평수:1층, 2층 각 100평
개관년도:1997. 1月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예대 졸업작품전, 의상학과 졸업작품전, 대한민국 건축대전
99년도 기획행사:미정

얼 화랑



주소: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38-3　　전화:285-0323
관장 이름:한춘희
대관료:1주 80만원
평수:총 43평
개관년도:1989. 12. 22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6회 전북 청년 작가 김윤진전, 다수의 개인 · 그룹전
99년도 중요 기획행사:1호 그림전

갤러리 민촌



이름:허명우
대관료:?
평수:100평
개관년도:1994. 5月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전국 파스텔 작가전, 공개누드크로키
99년도 기획행사: 만다라전-기획전, 자화상전, 공개누드크로키(남성)
부대시설:찻집, 미촌가든, 주차장 150대-무료, 잔디밭 100여평(행사)

전주대학교 화랑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과내
전화:미술학과 사무실 220-2404
관장 이름:판화과 황소연 교수, 학과장 송미희 교수
대관료:1日 20,000원, 전시기간 자유
평수:80평
개관년도:1995. 10月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가을자리 젊은 동향전, 투시와 포착전
전북공예가 협회전, 신 표상전
99년도 기획행사:지역작가 기획 초대전 준비中

우진문화공간



주소: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21　　전화:282-7227
관장 이름:김경곤, 최종순
대관료:1日 20,000　　1주 100,000
평수:40평
개관년도:1991. 3. 5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전북미술-오늘의 위상,
청년 작가가 본 전북의 산하전, 신예 작가 초대전
99년도 기획행사:젊은 작가 초대전(미정), 신예 작가 초대전(3月)

대곡리 미술관



주소: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43　　전화:(0673)642-4714
촌장 이름:최 원
99년도 기획행사:1998 작은소리전, 1998 도시의 일탈전
대관료:무료
개관년도:1986. 3. 30
지금까지의 대표적 전시:야외 설치미술제

오궁리 미술관



주소:전북 임실군 신덕면 지장리 45　　전화:(0673)643-7620

휴먼 갤러리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44 고려상호신용금고 4층
전화:(0652)86-8114-5　　FAX:(0652)86-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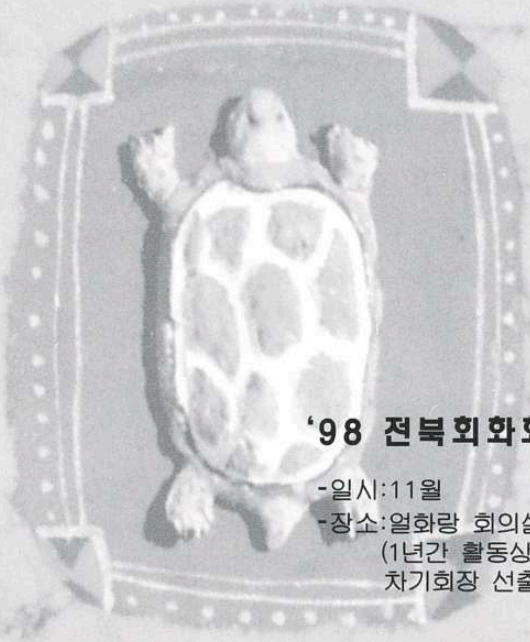
편 집 후 기

회원과 학우들에게 너무도 길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황순례 교수]의 '감성 표상의 미학'과 [김두경 선생님]의 '서예와 조수미' 글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미술과 문학의 만남의 장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 깊은 이웃의 글이 되기를 바라며 미술과 문학에 너의 텍스트가 되었으면 한다. 중세의 연애시 서두를 빌어서 써본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사람을 보내
말하지 말고, 제발 직접 와 주세요
중간에 사람이 끼면 위험하니까요

이 시는 길은 암시를 건드려 준다. 이 6호 전북회화지를 만나본 사람은 시종 직접 사랑으로 읽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주렴계의 책 '愛蓮說'의 [香遠益淸]이라는 말처럼 군자는 아니어도 이 책이 군자의 마음처럼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은 정신이 깃들기를 빌어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動]

발행 · 편집인/정미현
편집위원/이현배, 이승훈
전북회화회 1998년 통권 제6호
발행일 / 1998. 11. 18
제호인쇄 [redacted]
기획 · 제작/제호디자인 [redacted]



'98 전북회화회 정기총회

-일시:11월
-장소:얼화랑 회의실
(1년간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 회칙 개정 및
차기회장 선출 / 99신입회원 추천 및 영입)

'99 전북회화회 활동 계획

99. 1. 제2회 도예캠프 (장소:백제예술대학)
99. 2. 신입회원 환영모임
99. 3. 전북회화 10주년 도예특별전 (주관 :백제예술대학)
99. 4. 정기모임-정기전 및 세미나 계획수립
99. 6. 정기모임-전북 회화지 계획수립
99. 8. 하계 중국기행 참여
99. 10. 정기모임-10주년 전북회화 기념전 및 세미나
99. 11. 전북 회화 10주년 기념전 및 세미나
99. 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추천

전북 회화

1998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젊은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전라북도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